



윤석열 정부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을 보아 넘기지 말라

여권 핵심 인물들이 일제히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를 “대선 공작” 차원의 “허위 인터뷰”라며 총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 이면에는 대장동 개발의 진실 문제가 있다. 검찰은 정부 교체 후 1년 내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 파헤치기에 매진했다. 하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장동 이익 수백억 원이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들어갔으며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하지만 그 혐의는 올해 초 이재명 체 포동의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재명 수사가 거의 이런 식이다. 최근 이재명을 불러 조사한 쌍방울 대북 송금 건도 실은 이재명과 쌍방울 회장 김성태 간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의 진술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검찰은 이화영을 압박하고, 이화영은 그동안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수사는 난맥상을 보여 왔다. 이화영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런데 검찰은 김만배-남욱 등의 일당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바로 이 50억 클럽의 일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연관돼 있다.

50억 클럽

신학림 씨는 자신의 비매품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 1~3》가 한국 기득권층의 부패 사슬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을 인정해도, 김만배가 3권 값으로 지불한 1억 6500만 원이라는 거액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권은 이 점을 이용해 신학림과 김만배 간에 기획된 허위 인터뷰 녹취인 것처럼 몰아간다.



그러나 윤석열이 박영수 밑에서 특수부 검사로 활약해 온 점,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의 주임검사가 윤석열이었던 점, 문제의 조우형이 결국 4년 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정 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만배-신학림 간 가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

당시 <뉴스타파>는 이런 점들을 교차 검증하며 정당한 의혹 보도를 한 것이다.

대화 녹음 당시부터 기획된 공작이라고 볼 합당한 근거도 없다. 우선, 대화 내용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불리하다. 김만배가 대화 내용을 알릴 이유가 없다.

또한 신학림과 김만배의 대화는 2021년 9월이고, 신학림이 <뉴스타파>에 파일을 전달한 시점은 대선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던 2022년 3월 4일이었다. <뉴스타파>가 교차 검증 후 보도한 3월 6일은 대선 투표자의 절반이 투표를 마친 시점이었다. 대선 개입용 사전 기획이었다면, 왜 그래야 했을까?

그런데도 여권과 검찰이 둘 간의 금전

거래를 부각시키며 이를 허위 공작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참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윤석열 연루 의혹을 잠재우고, 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신용을 떨어트리려는 수작이다.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를 위해서는 만들지 않았던 특별수사팀을 이 대화 녹취 보도의 배후 수사를 위해서는 만들고 <뉴스타파>,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광석화처럼 벌였다.

언론 압수수색은 미래의 정보원들을 겁먹게 만들어 정권과 고위층 탐사 보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낸다.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의 부패 의혹을 파헤쳐 와 꾀죄죄에 걸리기도 했을 것이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측근들의 대선 대

응 텔레그램 대화방도 수사 대상이라고 흘렸다. 또 의혹을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이재명 수사 상황을 가리고, 시간을 벌려는 적반하장 식 역 의혹 제기이다.

정치 위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서 법질서와 이념을 내세운 윤석열의 책략과 탄압은 계속될 것이다.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날뛰는 듯한 우의적 공세와 법률적 수사를 통해 대중의 저항 의지와 사기를 떨어트리려고 우파 결집을 이뤄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위기의 요인들이 하도 얹히고 설킨 데다 그 표출이 파장을 이루어 윤석열이 광분해도 해결에 역부족인 듯하다.

<노동자 연대> 정규호에는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미국-사우디 동맹은 얼마나 틀어졌나?, 기후 위기 해결할 시간과 방법이 있을까?, 교사 운동의 전망과 과제, 철도 파업 지지한다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두 달간의 전국교사집회를 잠시 돌아보기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친 교사 운동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전국 교사집회'는 엄청난 대중운동으로 발전했다. 교사들은 '진상 규명'과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주말 집회를 매주 이어 갔다.

2차 집회부터 금세 수만 명으로 불어났고, 9월 2일 7차 집회에는 놀랍게도 2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였다. 두 달도 안 돼서 집회 규모가 4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정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몇 차례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하며 교사들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정부안은 현장 교사들이 보기에 별 실효성이 없는 데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이나 교권 침해 생활 기록부 기재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달래기로 안 되자, 교육부는 9월 4일 연가 집회를 막으려고 집회 참석, 연가·병가 사용 및 승인, 학교 임시 휴업 등 행위를 한 경우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9월 4일에는 예상을 뛰어넘어 국회 앞에 5만 명이, 부산 등 13개 지역 추모 집회에 7만여 명이 참가했다.

9월 4일까지 집회 참여 규모를 연인원으로 따지면 50만 명이 넘는다. 국내 유·초·중등 교사 수가 50만 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경이로운 숫자다. 특히 단체 행동권(파업권)이 없는 교사 10만여 명이 평일에 연가·병가 등을 내고 집회에 참가한 것도 유례 없는 일이다.

9월 4일 집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드러났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 혼란 초래 책임 회피 이주호는 반성하라", "징계 운운 권한 남용 교육 분열 이주호는 사과하라", "직권 남용



이주호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9월 4일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교사 운동이 미친 사회적 효과

교사 운동은 진정한 대중운동으로 성장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첫째, 교사 운동은 교사의 위기뿐 아니라 총체적인 공교육의 문제를 드러냈다. 교권 보호에 대한 광범한 지지가 형성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를 비롯해 많은 노조와 사회단체들이 9월 4일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부모들도 다수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둘째, 운동에 참가한 많은 교사들이 생애 처음 집회에 참가했지만, 대규모 운동을 통해 교사 노동자들도 단결해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의식도 성장했다. 운동이 지속되면서 교사들의 바람과 윤석열 정부의 대책 간에 괴리가 크다는 것도 점점 분명해졌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교권의 보호자가 아니라 침해자라는 점을 깨닫고,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투쟁을 통해 교육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랐다. 운동이 확대하면서 노조 가입도 늘어났다.

셋째, 9월 4일 집단행동은 징계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던 정부를 한 발 물려서게 만들었다. 산업적 효과는 미약할지라도, 단체 행동이 금지된 교사들의 집단적 '연가 투쟁'은 정부에 맞서는 정치적 효과가 크다.

이 때문에 교사 운동은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도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등 고무적 효과를 냈다. 특히 교사나 비슷한 처지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

자, 공무원 노동자,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서비스 노동자 등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해 전반적인 세력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교사 운동은 잠시 숨을 고른 후 9월 16일 주말 집회로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는 교원 감축, 재정 삭감 등 되레 교사들의 조건을 공격하고 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를 더 위험한 공간으로 만들려 한다. 따라서 정부와의 협상보다는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위기 심화에 직면해 긴축 정책을 펴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경쟁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양보를 얻어 내려면 만만찮은 투쟁을 벌여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홍범도 홍상 철거와 윤석열의 역사전쟁

9월 20일(수) 오후 8시

발제 **김문성** <노동자연대> 기자, <최근 한국 현대사 -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공저자

참가신청 **bit.ly/0920-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